

대중교통혁신추진단

I. 총 관

II.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

III.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

I. 총 관

□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

- 대전교통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
 - － 트램 ·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토대 마련
 - － 광역 BRT 구축, 환승센터 · 환승역 조성 등 교통수단간 원활한 연계
-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
 - － 트램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,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대책 마련
 - －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본격 추진

□ 금년도 주요성과로는

- 도시철도 2호선, 트램 추진 본격화로 사업의 신뢰성 및 추동력 확보
 - － 시범노선 선정, 노선 발표, 시민공청회 ·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
 - － 현장견학, 체험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으로 트램 건설 정착 및 논란 불식
-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및 서대전역 활성화 기반 마련
 - － 기본계획 수립 추진, 호남선 고속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
- 교통중심도시 재도약을 위한 충청권 상생의 광역 BRT 체계 구축
 - － 대전역~세종~오송역 구간 BRT 개통, 차고지 및 환승센터 조성 추진
- 시민들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
 - － 교통문화연수원 개원, 먼저가슈 본격 추진, 교통안전문화 MOU 체결

□ 내년에는

-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및 트램 시범노선 ·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에 주력하면서
-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

II.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

1. 도시철도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
2. 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건설 및 활성화
3. 광역BRT 체계 구축 및 연계시설 조성
4. 교통문화 인식 개선 및 트램 홍보 강화
5.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현

1. 도시철도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

-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- 시민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구축 및 선진 교통서비스 제공

1 도시철도 2호선, 트램 건설

- (노 선) 서대전역~정부청사~유성온천역~서대전역 / 순환형(37.4km)

1구간 ▶ 서대전역~가수원역(L=32.4km), 정류장 30개소 / 5,723억원 / 2015~2025

2구간 ▶ 가수원4가~서대전역(L=5.0km), 정류장 4개소 / 926억원 / 2020~2025

— (사 업 비) 6,649억원(국비 60%, 시비 40%) / 2015~2025년

-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/ '15. 4 ~ '17. 4

—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6회) / 진척율 75%(한국철도기술연구원)

- 국토교통부 주관 '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협의체' 구성·운영('16.4)

— 도시철도법 등 법령개정, 제도적 기반마련 상호 협력(대전시 등 12개 기관)

- 시범노선 선정('16.4) : 교통소외지역 배려, 시범사업 공모대비 2개 노선

— (A-Line) 동부네거리~법동~동부여성가족원(2.7km), 정류장 4개소 / 446억원

— (B-Line) 충남대~유성온천역~원골네거리(2.4km), 정류장 4개소 / 415억원

- 최종 노선발표(7월), 기본계획 변경(안)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(9월)

향후 계획

-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협의 추진

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(1호선) 운영

-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수준 높은 도시철도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

— 2006. 3월 개통 이래 승객 사망사고 및 중대 운행 장애발생 ZERO 달성

— 시민모니터 의견 수렴, 사례중심 친절교육, 친절왕 선발 등 서비스 강화

-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전·후의 교통수요, 파급효과 등 종합 분석·평가

— 도시철도 1호선 사후평가용역(법적 의무사항) : '16. 4. 14 ~ 11. 9 / 84백만원

향후 계획

- 도시철도 무사고 안전운행 기조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
- 1호선 사후평가서를 활용한 2호선 건설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

2. 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건설 및 활성화

- 도심 국철을 연계하여 남북축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기능 활용
- 광역철도 정차역 중심의 역세권 정비로 철도 주변지역 활성화 촉진

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

- 구 간 : 계룡 ~ 서대전 ~ 신탄진 / 연장 35.2km
 - * 전체구간 : 논산~청주공항(106.9km, 1조 1,708억원) 중 1단계
 - (기간) 2016 ~ 2021년 / 사업비 : 2,107억원(국비 1,187, 지방비 920)
 - (내용) 정거장 조성 : 11개소(기존역 개량 6, 신설 5)
 - * 계룡~흑석리~가수원~(도마)~(문화)~서대전~(용두)~(중촌)~회덕~(덕암)~신탄진
 - 선로 증설 : 2복선화(조차장~회덕 4.2km), 단선 추가(회덕~신탄진 5.6km)
-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(국토부) : '16. 3 ~ '16. 12
 - 타당성조사(노선, 정거장), 철도시설계획, 지반조사,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
- 충청권광역철도 및 환승역 건설 지원 TF팀 구성·운영(시, 도시철도공사)
 - 현장조사 지원,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, 자문회의 개최('16. 3~)

향후 계획

-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설역 추가, 환승계획 반영 등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 및 지원
- 기본계획 수립('16.12)→실시설계('17)→착공('18)→완공('21)→개통('22)

②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추진

- (그동안) 서대전역 KTX 호남연결·증편 및 「호남선 고속화사업」 추진
 - 지역주민(12만명) 서명운동, 호남향우회·경제사회단체 건의서 제출('16.3~4)
 - VIP 및 장·차관 면담 건의, 정치권 등과 연대한 대정부 활동 등 전개
 -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('16.9)
- (성 과)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「호남선 고속화사업」 신규사업 반영(6월)

향후 계획

- (단기적) 서대전역 KTX 호남연결·증편을 위해 정치권 등과 공조 정부 설득
 - 서대전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(버스, 타슈 등) 연계
- (중·장기적) 대전·충청과 호남의 연결 관문으로 철도 중심의 이용 활성화
 - 충청권광역철도 개통, 도시철도 2호선 환승, 호남선 고속화사업 추진

3. 광역BRT 체계 구축 및 연계시설 조성

- 대전·세종·오송간 상생발전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구축
- 대중교통 수단간 원활한 연계로 교통시설 이용 효율 극대화

① 충청권 상생의 광역BRT 체계 구축

- (대전역~세종~오송역간 광역BRT 건설) 광역경제권·교통체계 토대 마련
 - － 대전역 광역BRT 임시 환승장 조성 완료('16. 6)
 - － 대전역~와동 IC 1구간(L=4.36km)공사 준공 및 시험운행 / 7. 20 개통
- (유성~세종~오송역간 광역BRT 건설) 현재 반석역까지 운행 중인 BRT 노선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도로건설, 대중교통과 연계·환승 기대
 - － 경관심의위원회 심의('16. 5월),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(행복청)
- (대전~오송 광역BRT 차고지 조성)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
 - － 도시관리계획 결정(1월), 경관심의(4월), 실시설계 완료(6월), 공사 착공(10월)

향후 계획

- (외삼동~유성복합터미널 연결)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('16.11월), 보상 및 연결도로 공사발주('16.12월), 공사 준공('19.12월)
- (광역BRT 차고지 조성) 공사 추진('16.10월 ~ '17.10월)

②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시설 조성

- 충청권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 간 연계·환승을 위한 기반시설로 가칭 “용두 환승역” 건설
 - － (내 용) 중구 용두동 계룡육교 인근에 지하정거장 및 환승통로 1식 조성
 - － (기 간) 2016 ~ 2021년 / 사업비 : 343억원(예타 통과 사업비)
- 충청권광역철도 환승(용두)역 건설공사 T/F팀 구성·운영('16. 3)
- 환승(용두)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('16. 7.18 ~ 11.14)

향후 계획

-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: '16. 12월
- 기본 및 실시설계('17)→공사착공('18)→완공('21)→개통('22)

4. 교통문화 인식 개선 및 트램 홍보 강화

- 교통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으며 건강한 도시조성
- 비전과 믿음을 주는 전략적인 홍보로 트램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정착

① 품격 높은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

-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운동 “먼저가슈” 추진(2년차)
 - 교통문화의 날 운영(5회), 토크콘서트(6월), 그림·글짓기 대회(10월)
- 시민 교통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통전문 교육기관 조성 및 운영
 - 「교통문화연수원」 개원(2월), 교통안전체험교육(16,605명), 운수종사자 교육(140명)
- 방문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문화교실 운영(273개교)
-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(5개단체 19백만원)

향후 계획

- 교통문화 토크콘서트(11월), 플레시 몹·교통문화 공모전(11월) 개최 등
- 야외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전국 최고의 교통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
- 어린이집, 복지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안전문화교육 강화

② 트램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

- ‘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’이라는 시민인식 정착 및 외연확대
 - (공감 확산) 해외견학(4팀 50명), 오송 현장체험(7회 540명), 방문강의(22회), 아카데미·연찬회 개최(3회), 홍보부스 운영(23회), 공공교통수단 활용 홍보, 전문가 기고 및 기획보도(29회), 홍보동영상 제작(3종) 등
 - (외연 확장) 국제정책포럼 참석(2.23), 한국교통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(5.30), 대전트램포럼 창립회의 개최(9.30)

향후 계획

- 정치권, 관련학회 등 전국단위 외연확대로 트램 선도도시 위상제고
- 국내외 소통강화, 도로 감소대책 등 실질홍보 강화로 협력 및 동참유도
- 도로정체, 연계교통망 구축 등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현장설명회 등 개최

5.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현

- 트램의 성공적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
- 트램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

① 트램 건설에 따른 교통구조 개편

- 트램 건설 효과 극대화를 위한 트램 중심의 교통구조 개편 종합계획 수립
 - －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, 용역 추진을 위한 자문 및 검토
- 트램 전용지구 지정 운영을 통한 교통혼잡 최소화 및 도로 공간 효율화
 - － 트램 기반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연구용역 : '16. 3. 1~11.30 / 대전발전연구원
- 한국교통대학교, 도시철도공사와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(MOU) 체결(5.30)
 - － 전문지식 교육자문, 공동 연구과제 수행, 국가 R&D사업 참여 등 협력체계 구축

향후 계획

- 트램 중심의 「교통구조 개편 종합계획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, 전문가 자문, 용역비 확보 등 연구용역 수행 준비 : '16. 12월
- 트램 건설 협력체계(MOU) 구축 실무협의회 운영 : '16. 12월

②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
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동편의 대책 마련
 - －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충,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개선 등 「2016 교통약자이동편의 자료수집 등 시행계획」 수립·추진('16. 2월)
 - － 「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」 방안 검토('16. 3월~)
- 광역BRT, 충청권광역철도 등 광역대중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부권 교통본부 설립·검토
 - －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('16.5) : 대전·세종·충청남북도 교통정책 담당과장 4명

향후 계획

- 「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」 설립 기본계획* 수립 : '16. 12월
- * 타당성 검토, 운영계획 수립, 예산확보, 행정절차

Ⅲ.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트램 건설
2. 광역철도망 구축 및 정비를 통한 철도이용 활성화
3. 광역 BRT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간 상생 발전
4. 교통문화 확산 및 트램 선도도시 위상 제고
5.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

2017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

업무여건

-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(안)에 대한 변경 법적절차 마무리로 중앙관계 부처와의 본격적인 업무협의 및 법령개정 여건 조성
-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·증편 및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기반 마련
-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도심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구조 전면개편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교통복지 서비스 욕구 증가
- 트램 건설 인식개선 및 정착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문화 분위기 조성



중점방향

- 국내 최초 트램 건설을 위한 중앙부처와 검증절차 등 업무협의
- 타당성재조사 등 사업성 검증, 총사업비 조정, 법·제도개선 추진
- 도심 철도를 활용한 광역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역세권 활성화
- 충청권광역철도 실시설계, 호남선 고속화사업 신규추진, 역세권 정비
-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 BRT 구축 및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
- 외삼동~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, 환승센터 및 차고지 조성
- 양보와 배려의 가치 확산을 통한 사람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
- 트램 홍보 전략화, 교통문화운동 전개,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

1.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트램 건설

- 국내 최초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건설을 통해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,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

① 도시철도 2호선, 트램 건설

- (노 선) 서대전역~유성온천역~진잠~서대전역 / 순환형(37.4km)
 - 1구간 ▶ 서대전역~가수원역(L=32.4km), 정류장 30개소 / 5,723억원 / 2015~2025
 - 2구간 ▶ 가수원4가~서대전역(L=5.0km), 정류장 4개소 / 926억원 / 2020~2025
 - (사 업 비) 6,649억원(국비 60%, 지방 40%)
 - (사업기간) 2015~2025년(1·2구간 동시 개통)
- (추진계획)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·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, 기본 및 실시설계('19년), 공사 착공('21년), 준공 및 개통('25년)
 - * (법·제도 정비) 도시철도법, 철도안전법, 도로교통법 등 개정

② 트램 시범노선 건설

- (노 선) 2개 노선 / 교통 소외지역(A라인) 및 정부 시범사업 공모대비(B라인)
 - A 라인 ▶ 동부네거리~법동~동부여성가족원(L=2.7km), 정류장 4개소 / 446억원
 - B 라인 ▶ 충남대~유성온천역~원골(L=2.4km), 정류장 4개소 / 415억원
- (A라인) 기본·실시설계('17년), 공사 착공('18년), 준공 및 개통('20년 상반기)
 - * (B라인)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비 사업규모, 건설 및 운영방식 등 검토하여 결정

③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운영(1호선)

- (현장행정 강화) 무사고 안전운행 기조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최우선
 - 시·공사 합동 안전점검(분기별), 특별안전점검(수시), 고위험시설물 정기점검
- (고객서비스 강화) 시민모니터 의견수렴을 통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
 - 역사 공기질 청정관리, 안내시스템 확대, 편의시설 확충, 친절교육 등
- (철도운영 내실화) 수송증대 대책 추진 및 기술경영으로 공기업 효율성 제고

2. 광역철도망 구축 및 정비를 통한 철도이용 활성화

- 국철을 광역철도로 정비하여 남북축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으로 활용
- 도시·광역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철도 이용효율 향상

1.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

- 대전·충청권 광역 교통서비스 제공 및 도시철도 1·2호선과 연계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

<div>사업 개요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구 간) 계룡~서대전~신탄진, 연장 35.2km / 1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체 : 논산~청주공항(106.9km, 1조 1,708억원) • (기 간) 2016 ~ 2021년 / 사업비 : 2,107억원(국비 1,187, 지방비 920) • (내 용) 정거장 개량 및 신설 11개소*(기존역 개량 6, 신설 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차장~회덕(4.2km) 2복선화, 회덕~신탄진(5.6km) 단선추가 * 계룡~흑석리~가수원~(도마)~(문화)~서대전~(용두)~(중촌)~회덕~(덕암)~신탄진
----------------------	--

- 교통수단과의 연계, 진입도로 정비, 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철도역 주변 활성화
- (추진계획) 기본 및 실시설계('17년)→공사추진('18~'21년)→개통('22년)

2. 광역철도 용두 환승역 건설

- 충청권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·환승을 통한 이용효율 극대화

<div>사업 개요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위 치) 중구 용두동 계룡육교 부근 • (기 간) 2016 ~ 2021년 / 사업비 : 343억원(시비 100%) • (내 용) 지하정거장 1개소, 환승통로 1개소, 전기·기계·통신시스템 등
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(추진계획) 기본 및 실시설계('17년)→공사추진('18~'21년)→동시개통('22년)

3. 호남선 고속화사업(신규사업)

-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대전·충청·호남권 접근성 개선 및 열차운행 안전성 향상, 이용객 증가에 따른 KTX 증편 추진

- (구 간) 가수원 ~ 논산, 연장 29.3km / 사업비 : 4,596억원
- (내 용) 굴곡노선 선형개량 및 노후선로 보수

- (추진계획) 사전타당성조사→예비타당성조사→기본계획 수립→실시설계

3. 광역 BRT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간 상생 발전

- 대전·세종·오송 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
-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통수단간 원활한 연계로 이용효율 극대화

① 외삼~유성복합터미널 광역 BRT 연결도로 건설

- 세종~반석 BRT 노선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연계·환승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상습 교통정체 해소

사업	· (위 치) 유성구 외삼동 ~ 구암동(유성복합터미널)
개요	· (기 간) 2014 ~ 2019년 / 사업비 : 1,284억원(국비 642, 시비 642)
	· (규 모) L=6.58km, B=40~50m (8~10차선)

- (추진계획) 토지보상 및 공사 발주 등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('19.12월 준공)

② 대전역 광역 BRT 환승센터 조성

- 광역 BRT 운행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수단간 원활한 연계를 통한 광역 대중교통 이용효율 극대화

사업	· (위 치) 동구 소재동 291-1번지 일원 / 대전역 복합2구역 동광장
개요	· (기 간) 2015 ~ 2019년 / 사업비 : 218억원(국비 109, 시비 109)
	· (면 적) 14,618m ² / 지하2층, 지상1층, 주차면 666면

- (추진계획) 대전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제공모(한국철도공사), 환승센터 부지 협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(우리시), 공사 착공 및 준공('19.12월)

③ 광역 BRT 차고지 조성

- 광역 BRT 운행버스의 정비·세차·휴게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광역 대중교통 운송 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

사업	· (위 치) 유성구 금고동 481번지 외 7필지
개요	· (기 간) 2015 ~ 2017년 / 사업비 : 40억원
	· (면 적) 부지 4,805m ² / 연면적 1,312m ² , 3개동

- (추진계획) 공사 착공 및 준공 : '16. 10. 17 ~ '17. 10. 16 (1년)

4. 교통문화 확산 및 트램 선도도시 위상 제고

-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운동 추진으로 품격높은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
 - 국내·외 소통강화와 외연확대로 트램 도입을 선도하고 협력과 동참유도
-

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운동 “먼저가슈” 추진

-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9개 과제, 3년차 추진
 - － 생각높이기, 돌아보기 등 2년차 성과보고 및 2017년 실행계획 수립
-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문화 프로그램 운영
 - － 시민공감 토크콘서트, 플래시몹, 그림그리기·글짓기 대회 등
-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통관련 단체 사업지원
 - － 교통문화 의식개혁 및 선진교통문화 창출사업 등 5개 사업
- 어린이와 어르신·장애우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자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
 - － 「찾아가는 교통문화교실」 운영, 「교통문화 클리닉」 특강 운영

② 트램 공감 확산 및 도입 선도

- 트램 체험활동 확대 등 홍보 강화로 시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정착
 - － 찾아가는 주민설명회, 오송트램 체험, 미니트램 체험시설 운영, 동영상 홍보
- 정치권, 관련학회 등 전국단위 외연 확대로 트램 선도도시 위상 확보
 - － 대전트램 포럼을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‘미래교통포럼’ 으로 확대, 소통강화
 - － 관련학회, 중앙 매스컴 등과 공동학술대회 개최로 전국 의제화 등 정책 선도
- 국내·외 소통강화 등 실질홍보 강화로 트램 건설 협력 및 동참 유도
 - － 국토교통부, 트램 추진 자치단체,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구축
 - － 유럽 선진도시와의 MOU 등 실질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방안 마련

5.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

-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
 -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화 및 교통복지 서비스를 위한 운영구조 개선
-

① 트램 사업 극대화를 위한 교통구조 개편

-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트램 사업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도시발전계획 수립 추진
 - － 충청권광역철도, BRT, 시내버스, 자전거 등을 연계, 5분만 걸으면 역이나 정류장이 나오는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- 광역 대중교통 수요에 부합하고 교통정책을 수립·집행 할 수 있는 기구 검토
 - － 대전·세종·충청남북 교통전문기관으로 가칭 ‘중부권 교통본부’ 설립 방안 협의

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 추진

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전문화* 추진
 - － 「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」 설립 : 2018년 개원 목표로 추진
 - * 이동지원 확대, 정보제공 및 상담, 행정지원 역할 담당
-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차별 법정계획 수립·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
 - － 2017년 실행계획 :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급 확대, 이동편의 시설 정비, 특별교통수단 확충,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복지 실현

③ 선진교통문화 선도, 「교통문화연수원」 기능 활성화

- 교통문화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전문 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
 - － 시민 교통안전체험교육 + 운수종사자 교육 + 음주운전자 강화교육 추진
-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
 - － 어린이, 초·중·고등학생, 일반시민, 운수종사자(버스·택시·화물) 등 연간 7만명 목표
 - － 시민안전과 교통문화, 트램체험 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